

도시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건강 및 경제실태 분석*

An Analysis of Health and Economic Status of the Urban Elderly According to Their Lifestyle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문숙재

부교수 최혜경

부교수 정순희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Sook-Jae Moon

Associate prof. : Hae-Kyung Choi

Associate prof. : Soon-Hee Joung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elderly over the age of 60 according to their lifestyles and analyze the health and economic status of them that are classified. Data were obtained from 463 elderly living in urban areas. Factor analysis was used for examining dimensions of lifestyles and cluster analysis for classifying the elderly by lifestyles.

This study found six different types of lifestyles, i.e., the actively self-developing type, the individualist seeing the negative aspects of the world, the sensuous joy oriented type, the obedient to the tradition type, the conservative with discontented attitude toward the world, and the introspective self-fulfilling typ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iving status as well a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mong six types of lifestyle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elderly have various lifestyles and, therefore, the understanding the lifestyles of the elderly will enable researchers to capture the problems the elderly face and provide more insight into their living status.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1997년도 대학부설연구소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수행되었음.

I.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노인의 역할과 지위는 추락되어 왔으며, 새로운 지식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즉, 평균수명의 연장 및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 그리고 가족 부양기능의 약화로 인해 노인들은 경제적 문제와 건강약화 문제, 역할상실, 고독 및 소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황준호, 1990; 고영수, 1993; 박경혜, 1997).

특히 1960년 경제개발 계획에 참여한 현재의 노인 세대는 대부분 연금이나 퇴직금 등 생활보장 대비책이 없는 비정규 취업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이들 계층이 노인이 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인들은 과거와 같은 가족 중심의 노인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책없이 살아야 한다는 갈등요인을 안게 되어, 현재 노인문제는 보다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건강, 빈곤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장현·이철우, 1996).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생활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가능한데, 노인의 욕구를 경제적 욕구, 건강상의 욕구, 심리사회적 욕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할 때(이가옥, 1990),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객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건강상태, 경제상황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걱정이나 근심거리인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조사된 바 있고(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건강 및 경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노인문제들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노인의 생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중 다른 노인 문제들에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전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와 건강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박재간, 1996), 이 두 가지 문제는 노인이 겪고 있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알게 되며, 노인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분석되어야 할 측면임을 알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는 이미 건강상태와 경제 여건이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Magilvy, 1985; 이가옥 외, 1994; 장현·이철우, 1996; 고승덕·조숙행, 1997).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자 노인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많이 행해져 왔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1985년과 1994년에 행해진 연구 뿐이며(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이가옥 외, 1994), 이 연구들은 노인을 하나의 전체집단으로 파악했을 뿐 일생을 살아가면서 형성된 개개인들의 총체적인 생활패턴을 나타내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노인을 고찰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는 실정이다.

노년기는 인생 주기(life cycle)의 최종단계로서, 노인들은 긴 인생동안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 왔고,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은 결과로서 그들의 생활에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즉, 노인들은 일생동안 형성된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현재 노인이 영위하고 있는 생활형태를 구성해 준 요인인 것이다.

노인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보고 욕구를 파악하며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특정한 속성을 가진 노인들을 그 속성을 무시한 채로 하나의 커다란 집단으로서 파악하는 것은 서로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노인들의 욕구 및 행동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얻게 되는 노인 각각에게 적합한 구체적인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노인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노인의 욕구를 알아내어 충족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류하고, 노인의 가장 큰 관심사인 노인의 건강 및 경제생활 측면을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개념은 사회학자인 Weber와 정신분석학자인 Adler로부터 유래되었다. Weber는 사회계층을 생산체제에의 참여형태로만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하여 계급(class) 이외에 새로운 계층분류의 기준인 지위그룹(Status Group)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지위그룹이란 재화의 소비양식, 직업, 교육 및 교육패턴에 의하여 형성되는 계층으로서 생활양식, 생활태도, 인생관등의 면에 있어서 유사성이 존재하여 특정한 생활방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이차욱, 1983).

여기에서의 특정한 생활방식이 바로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서 Weber이후 이 개념은 사회학, 심리학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사회학자인 Duncan은 라이프스타일을 웨버의 개념인 단순한 기호나 태도를 의미하는데 머물지 않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종합원리라는 것을 지적하여 이를 라이프스타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성혜영·임정빈, 1994).

사회학자의 대표적인 예로 Feldman과 Thielbar는 미국사회의 다양성과 그 안에서의 유사성을 정리하기 위해서 라이프스타일개념을 적절히 활용했다. 이들에 따르면, 라이프스타일은 첫째, 하나의 집단현상이고 둘째, 다양한 생활영역에 나타나며 셋째, 생의 신조 또는 가치관을 포함하고 넷째, 몇 개의 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데, 경제학적 조건 및 소득수준이 같더라도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특히 성별, 연령, 인종, 종교, 거주지역 등에 따라서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낸다(안영면, 1996). 또한 Lazer(1963)는 라이프스타일이란, 문화, 가치관, 자원, 상징, 허용 등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의 소산이

라 할 수 있으며, 일련의 소비자 구매행위와 그들의 소비태도는 사회 또는 특정부문의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생활과제를 해결하고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생활의식, 생활구조, 생활행동의 패턴화된 시스템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노인 생활실태 분석의 선행연구 고찰

노인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크게 건강생활과 경제생활으로 분류하여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태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가 전국의 60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노후생활 속에서 근심이나 걱정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에 있어서 73.1%의 노인이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이 나쁜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율인 42.7%의 노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많은 노인들에게 건강은 큰 걱정거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유병률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해원, 1995; 백종남, 1996).

노인의 건강은 여러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이 나쁠수록 생활만족도가 저하되어(장현·이철우, 1996), 노인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시키게 된다.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가옥 등(1994)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서 건강이 '아주 나쁨' 15.5%, '약간 나쁨' 28.2%, '보통' 20.0%, '좋은 편임' 30.0%, '매우 좋은 편임'이 6.3%로 전체 노인의 62.7%가 자신이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고, 고영수(1993)의 연구에서는 68.7%, 농어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백종남(1996)의 연구에서는 90.2%의 노인

들이 자신이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건강상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인이 앓고 있는 질병을 조사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신경통과 관절염, 고혈압을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속히 치료되거나 회복되는 급성 질병보다는 장기적이고 완치가 힘든 만성적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영수, 1993; 이가옥 외, 1994; 백종남, 1996; 김철웅, 1998).

이가옥 등(1994)은 노인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동작인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외출하기,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측정된 결과, 이중 한 가지 이상 동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은 26.6%이며, 6가지 동작 모두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4.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식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5.1%로 가장 낮고, 외출에 지장이 있는 노인이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좀더 복잡한 능력을 측정하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집안일하기 19.4%, 일상용품 구매 22.2%, 전화걸기 26.1%, 버스나 전철타기 29.8%의 순으로 많은 지장이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2) 경제생활실태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령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경제적 사정의 약화이다(백종남, 1996). 노인의 경제생활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노인들의 취업실태에 대한 1994년 통계청 자료에서는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2%로서, 1970년에 비해 1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원하지 않는 노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한 연구(박경혜, 1997; 김중철, 1998)와 그렇지 않은 연구(한국궤립조사연구소, 1990; 황준호, 1990; 이가옥 외, 1994)가 있었으나, 최근의 연구일수록 노인들의 취업의사가 강하다고 보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취업 중이거나 취

업을 희망하는 노인의 취업동기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돈이 필요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건강을 위해서로 나타났다(한국궤립조사연구소, 1990; 황준호, 1990; 이가옥 외, 1994; 백종남, 1996; 박경혜, 1997). 취업을 원치않는 이유는 힘이 들어서와 건강관계 때문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가장 많았고, 자녀만류 등의 기타 이유를 든 노인들도 있었다(황준호, 1990).

종합하여 볼 때 노인들은 건강이 허락한다면 대부분 취업을 하고 싶어하며, 희망하는 이유는 자발적인 경우보다는 생계를 위해서임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그만큼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영수, 1993).

노인들의 월평균 소득액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가옥 외(1994)의 연구에 따르면, 월평균 생활비는 전체 노인의 26.8%가 10만원 미만이었으며, 절반 정도의 노인 44.5%가 2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10만원 미만의 낮은 월평균 소득액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 이외에,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경제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약 50% 이상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이가옥 외, 1994; 고영수, 1993; 황준호, 1990), 소득과 관련하여 노년기의 경제적 복지 실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한국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분류한다.
- 연구문제 2.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노인건강 및 경제생활측면을 분석한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도구로 사용된 질문지는 노인 자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즉, 인구통계학적 사항을 묻는 문항과 건강 및 경제실태파악을 위한 문항,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을 분류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건강생활에 관한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17개의 주요 질병 항목,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인지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불편함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노인이 평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벤자민 로즈 병원(Benjamin Rose Hospital)의 척도 및 Katz, Lawton, Brody의 척도, 이가옥 외(1994)와 김철웅(1998)의 척도를 참고로 하며 목욕하기,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 집안청소, 전화걸기 문항을 추출하였고, 현대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신문읽기·독서와 TV시청·라디오 청취 문항을 포함한 6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간 신뢰도(Cronbach's α)는 0.89로 측정되었다.

경제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서는, 노인의 직업유무, 월평균소득, 그리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노인의 경제생활수준, 노인의 경제적 안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주거상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라이프스타일 조사항목은 한국노인의 삶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의 설문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윤중선, 1994; 조형오, 1996; 채진미, 1997)). 각각의 항목들은 개인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식생활양식, 의생활양식, 주생활양식, 여가 및 취미생활, 지적활동, 그리고 가족관 및 결혼관 등에 관련하여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총 45문항으로 작성되었다.

3. 조사대상 및 표집절차

본 연구는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분류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로서,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도시노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생활실태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국의 6개 주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하여금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1998년 6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되었고 총 6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 가운데 574부를 회수하여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총 463부가 분석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N=463)

일반적인 특성	분 류	빈도(백분율%)
지 역	서 울	126(27.2)
	지방도시	337(72.8)
연 령	60대	272(58.7)
	70대	151(32.6)
	80대이상	40(8.6)
성 별	남 자	187(40.4)
	여 자	276(59.6)
최종학력	무 학	68(14.7)
	국 졸	139(30.1)
	중 졸	67(14.5)
	고 졸	104(22.5)
	대졸이상	84(18.2)
종 교	개 신 교	109(23.6)
	불 교	181(39.2)
	천 주 교	57(12.3)
	기 타	115(24.9)
배우자 유무	유 배 우	154(33.6)
	무 배 우	304(66.4)
	혼자기거	163(35.3)
가족동거유형	배우자와 둘이 동거	264(57.1)
	자녀와 동거	35(7.6)

2. 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 및 집단 분류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시키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선 주성분분석(PCA)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Scree-test 결과 고유치(eigen

value)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점에서 7개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그 7개 요인들을 varimax 방법에 의해 직교회전 시켰다. 그 결과 요인적재량이 0.40이하로 나타나거나, 어느 한 요인에 대해 뚜렷이 높은 적재량을 보이지 않는 9개 문항을 제외한 36문항에

〈표 2〉 라이프스타일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안은 공변산값임.

	문 항 내 용	요인적재치	Eigenvalues
요인1 : 자기개발	14. 집에 서재 또는 공부방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78	4.73(10.52)
	13. 평상시에도 지식습득을 위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74	
	12. PC나 전화로 정보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71	
	16. 스포츠관람을 위해 경기장에 자주 간다.	.65	
	11. 개인용컴퓨터는 생활의 필수품이다.	.60	
	17.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 클럽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58	
	15. 거의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다.	.53	
	18. 교양강좌나 문화센터에 다니고 있다.	.52	
	요인2 : 세대비판	40. 우리나라는 돈이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벌게 되어있다.	
39. 정당한 노력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71	
42. 우리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71	
41.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요구와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69	
43.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가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67	
44. 요즘사람은 지나치게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한다.		.63	
45.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에 더욱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60	
37. 우리나라 언론은 횡포가 심하다.		.51	
36.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48		
요인3 : 외적미의 추구	2. 구두나 장신구는 옷에 맞추어 착용한다.	.81	3.32(7.37)
	5. 옷은 상황에 맞추어 다르게 입으려고 노력한다.	.73	
	1. 옷이나 머리모양, 장신구 등을 자주 바꿔댄다.	.70	
	3. 체중이나 몸매에 항상 신경쓰고 있다.	.68	
	4. 몸치장이나 옷차림에 들이는 돈은 아깝지 않다.	.63	
요인4 : 가족활동중시	26. 가족 모두가 모여 자주 식사하는 편이다.	.70	2.66(5.90)
	25. 지금까지 휴가는 주로 가족과 함께 보냈다.	.60	
	23. 가족끼리 외식을 자주한다.	.59	
요인5 : 전통주의	34. 결혼은 꼭 할 필요가 없다*.	.59	2.29(5.08)
	9. 점심으로 햄버거, 핫도그 등의 패스트푸드를 먹는 경우가 많다*.	.51	
	33.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49	
35. 어떤 경우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	.47		
요인6 : 개인주의	19.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산다.	.74	2.19(4.86)
	20. 규칙이나 규범에 얽매는 것을 싫어한다.	.73	
	21.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을 거리낌없이 남에게 말한다.	.67	
요인7 : 삶의 불만족	32. 취미나 여가생활을 하고 싶지만 시간과 돈이 없다.	.71	2.00(4.43)
	31. 여가시간이 충분치 않다.	.62	
	28.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52	
	30.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모를 때가 있다.	.52	

*역산되었음.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하여 7개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별 고유치와 전체변량 중의 비율이 가장 높은 요인 1(고유치 4.73, 설명변량 10.52)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 운동이나 취미활동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고유치 4.07, 설명변량 9.04)는 우리나라 사회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세대비판'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3(고유치 3.32, 설명변량 7.37)은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중시하고 있으므로 '외적미의 추구'라 명명하였다.

요인 4(고유치 2.66, 설명변량 5.90)는 가족과 함께 식사나 휴가를 보내는 등 가족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활동중시'라고 명명하였고, 요인

5(고유치 2.29, 설명변량 5.08)는 결혼이나 가족관 등에 대해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통주의'라 명명하였다. 요인 6(고유치 2.19, 설명변량 4.86)은 행동을 할 때 남을 의식하거나 외부의 규칙에 얽매이기 보다는 자신의 의견과 느낌대로 행동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주의'라 명명하였고, 요인 7(고유치 2.00, 설명변량 4.43)은 자신을 돌아보기위한 시간을 갖고자 하고 여가시간을 갖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현재의 삶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삶의 불만족'이라 명명하였다.

전체 설명력은 47.2%로서 노인의 모든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정교화된 척도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이프스타일 요인에 따라 응답자들의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점수의 동질성을 기본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졌으며 <표 3>에 라이프스타일 요인별

<표 3> 6개 집단의 라이프스타일 요인별 분산분석 및 Duncan테스트 결과

(N=463)

요인	군 집	1. 적극적 자기개발형 (n=21)	2. 비판적 개인주의형 (n=105)	3.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 (n=27)	4. 전통지향적 현실순응형 (n=97)	5. 보수적 현실불만형 (n=113)	6. 내향적 자이추구형 (n=100)	F값
자기개발	M	1.78	-0.14	-0.45	-0.57	0.00	0.45	34.006***
	D	A	CD	DE	E	C	B	
세대비판	M	1.01	0.61	-1.54	0.36	0.13	-0.93	87.595***
	D	A	B	E	BC	C	D	
외적미의 추구	M	0.01	0.04	0.63	0.15	-0.21	-0.13	4.091**
	D	B	B	A	B	B	B	
가족활동중시	M	-0.18	0.31	2.01	-0.32	0.18	-0.73	61.948***
	D	C	B	A	C	B	D	
전통주의	M	-0.72	-0.38	-0.19	0.06	0.64	-0.18	18.285***
	D	D	CD	BC	B	A	BC	
개인주의	M	-0.50	0.98	-0.44	-0.58	-0.48	0.29	57.314***
	D	C	A	C	C	C	B	
삶에 불만족	M	-1.13	0.18	-0.54	-0.80	0.86	0.00	59.855***
	D	D	B	C	C	A	B	

M : 평균

D : 던컨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은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고 문자의 순서는 점수의 크기순서와 같다.

***: P<.001 **: P<.01

분산분석 및 Duncan테스트 결과를 제시하였다.

집단 1은 자기개발과 세태비판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통주의와 삶에 불만족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집단은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기발전을 위한 지식습득이나 취미, 사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 자기개발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2는 다른 성향에 비해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세태비판, 가족활동중시에서도 비교적 높은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느낌이나 행동을 중시하고 가족활동에 자주 참여하며, 주변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비판적 개인주의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3은 가족활동중시에서 아주 높은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집단보다 외적 미의 추구에 있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태비판에 대해서는 아주 낮게, 자기개발이나 삶에 불만족,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집단은 자신의 삶이나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별로 없으며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한 시간을 추구하기 보다는 외적 미를 추구하고 여유롭게 가족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하고 좋아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4는 외적 미 추구의 성향과 전통주의에 있어서 다른 성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자기개발 성향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난다. 개인주의, 삶에 불만족, 가족활동중시에서도 낮게 나타나는 편으로,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관습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특별히 자신이나 가족에 중점을 두어 무엇을 추진하여 한다가 보다는 현실에 적응하는 유형이므로, '전통지향적 현실순응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5는 삶에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다른 집단에 비해 전통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가시간을 충분히 갖으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생활을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보수적 현실불만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6은 자기개발 성향에서 집단 1보다는 낮지

만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가족활동중시와 세태비판에서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집단은 자기의 느낌과 행동을 중시하고, 자기개발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집단으로 사회현상이나 가족활동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활동을 중시하는 유형이므로 '내향적 자아추구형'이라 명명하였다.

3.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라이프스타일유형별로 성별과 학력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적극적 자기개발형에는 남자노인이 많았고,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에는 여자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적극적 자기개발형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다른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늙어서도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유지하는 경향을 높음을 시사했다.

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건강생활실태 분석

노인의 건강상태는 개인이 갖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중양일보, 1998)에 따라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건강상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노인의 건강상태를 먼저, 질병보유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알아보기 위해 17개의 질병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해 공통적으로 잘 나타나는 질병끼리의 요인으로 묶어 분석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CA)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 요인을 추출하였다(표 5).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요인 1은 0.83, 요인 2는 0.76, 요인 3은 0.74, 요인 4는 0.68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명을 정하는데 있어서, 요인 1은 '심장 및 순환계장애', 요인 2는 일반적 건강문제인 '복통·두통·화병', 요인 3은 '관절염·시력장애·피로', 요인 4는 '호흡기장애·고혈압'으

<표 4>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백분율: %)

요인	군 집	1. 적극적 자기개발형 (N=21)	2. 비판적 개인주의형 (N=105)	3.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 (N=27)	4. 전통지향적 현실순응형 (N= 97)	5. 보수적 현실불만형 (N=113)	6. 내향적 자아개발형 (N=100)	계 (N=463)
		지역	서울	6 (28.6)	34 (32.4)	5 (18.5)	20 (20.6)	29 (25.7)
	지방도시	15 (71.4)	71 (67.6)	22 (81.5)	77 (79.4)	84 (74.3)	68 (68.0)	337 (72.8)
$\chi^2 = 5.889$								
성별	남자	14 (66.7)	46 (43.8)	10 (37.0)	28 (28.9)	52 (46.0)	37 (37.0)	187 (40.4)
	여자	7 (33.3)	59 (56.2)	17 (63.0)	69 (71.1)	61 (54.0)	63 (63.0)	276 (59.6)
$\chi^2 = 13.973^*$								
종교	개신교	7 (33.3)	31 (29.5)	7 (25.9)	18 (18.6)	23 (20.5)	23 (23.0)	109 (23.6)
	불교	5 (23.8)	43 (41.0)	7 (25.9)	41 (42.3)	44 (39.3)	41 (41.0)	181 (39.2)
	천주교	3 (14.3)	7 (6.7)	5 (18.5)	12 (12.4)	16 (14.3)	14 (14.0)	57 (12.3)
	기타	6 (28.6)	24 (22.8)	8 (29.6)	26 (26.8)	29 (25.9)	22 (22.0)	115 (24.9)
	$\chi^2 = 14.941$							
연령(세)	M	65.76	68.05	70.26	69.92	68.81	68.71	1.81
교육수준 (년수)	M	12.57	9.31	7.04	7.23	9.54	8.28	6.07***
	D	A	B	C	C	B	BC	

M : 평균

D : 던컨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은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고 문자의 순서는 점수의 크기순서와 같다.

***: P<.05

로 명명하였고, 이후 노인의 질병보유현황에 대한 분석은 각 요인별로 살펴보았다. 전체 설명력은 59.73으로서, 노인의 건강을 측정하는 질병의 문항 구성에 있어서 좀더 정교화된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는데, 복통과 두통을 나타내는 요인에서는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고, 관절염과 시력장애를 나타내는 요인에서는 유의수준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복통 및 두통과 같은 일반적인 건강면에서는 적극적 자

기개발형은 증세가 가장 약하고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이 증세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절염 및 시력장애를 나타내는 요인에 대해서는 비판적 개인주의형은 증세가 심하고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은 증세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질병에 대한 점수의 총합으로 질병보유건강상태를 측정 한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적극적 자기개발형이 가장 질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판적 개인주의형이 가장 많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보면, 노인들은 복통, 두통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

<표 5> 질병 군형의 요인분석

	문항내용	요인적재치	Eigenvalues
요인1 : 심장 및 순환계 장애 (4 - 20)*	13. 심장계 장애 11. 가슴의 통증 12. 순환기 장애 14. 신장계 장애	.81 .68 .65 .61	3.02(17.76)
요인2 : 복통 · 두통 · 화병 (4 - 20)	6. 설사 5. 복통 17. 화병 1. 두통	.84 .81 .51 .50	2.67(15.72)
요인3 : 관절염 · 시력장애 · 피로 (4 - 20)	8. 관절염 9. 시력장애 16. 피로 7. 근육통	.74 .69 .67 .62	2.47(14.52)
요인4 : 호흡기장애 · 고혈압 (4 - 16)	2. 천식 3. 고혈압 4. 호흡곤란	.77 .72 .54	1.19(11.73)

()안은 공변산값임.
*()안은 각 요인의 점수분포임.

<표 7> 주관적인 건강상태 인지

(N=463)

분 류	군 집	1. 적극적 자기개발형 (n=21)	2. 비판적 개인주의형 (n=105)	3. 감리지향적 현실향유형 (n=27)	4. 전통지향적 현실순응형 (n=97)	5. 보수적 현실불만형 (n=113)	6. 내향적 자아추구형 (n=100)	분산분석 F값
		M D	3.19 A	2.70 C	3.11 AB	2.77 BC	3.16 A	
전반적인 건강상태	M D	3.19 A	2.70 C	3.11 AB	2.77 BC	3.16 A	2.89 ABC	4.099***

M : 5점 평점 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속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D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은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고, 문자의 순서는 점수의 크기순서와 같다.
* : P<.05 ** : P<.01 *** : P<.001

으며, 그 다음으로 관절염이나 시력장애 및 피로에 대한 증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가옥 외(1994)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은 관절염, 신경통, 류마티즘 등의 관절통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대상의 노인들이 노인의 질병이라 인식되고 있는 관절통보다도 어느 연령층에서 누구라도 앓을 수 있는 두통, 복통 등의 병에 대해 높은 보유율을 보인 이유는, 본 연구대상 노인의 평균 연령이 67세로 낮으며 연령층이 60대가 약 60%, 70대 이상이 약 30%로 아직까지는 노인이라 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조사 대상자 중

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은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라이프 스타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인데, 적극적 자기개발형의 노인과 보수적 현실불만형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비판적 개인주의형의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안좋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질병보유정도를 통해 노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했을 때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8>은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를 측정하는 각

〈표 8〉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분 류	군 집		1. 적극적 자기개발형 (n=21)	2. 비판적 개인주의형 (n=105)	3.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 (n=27)	4. 전통지향적 현실순응형 (n=97)	5. 보수적 현실불만형 (n=113)	6. 내향적 자이추구형 (n=100)	분산분석 F값
	목	속							
	M		1.57	2.22	1.93	2.29	2.14	2.07	1.374
잠자리에들고 일어나기	M		1.43	2.32	1.85	2.25	2.01	2.06	2.834*
	D		B	A	AB	A	A	A	
어려운집안청소	M		2.00	2.97	3.04	3.08	2.84	2.81	2.330*
	D		B	A	A	A	A	A	
신문읽기 독서	M		1.62	2.64	2.85	2.78	2.63	2.61	2.616*
	D		B	A	A	A	A	A	
라디오 TV시청	M		1.48	2.13	2.59	2.05	2.02	2.03	2.565*
	D		C	B	A	B	B	B	
전화걸기	M		1.29	1.98	2.19	1.90	1.83	2.04	2.187
	D								
ADL총합	M		9.25	14.20	14.44	14.43	13.52	13.69	2.763*
	D		B	A	A	A	A	A	

M : 5점 평점 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속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D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은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고, 문자의 순서는 점수의 크기순서와 같다.
 * : P<.05 ** : P<.01 *** : P<.001

각의 ADL문항들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 집안청소, 신문읽기·독서, 라디오·TV시청의 항목에서 적극적인 자기개발형은 가장 어려움이 없었으며, 라디오·TV시청의 항목에서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의 노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는데 점수로 보면 '그저 그렇다'의 3점과 '별로 불편하지 않다'의 2점 사이인 2.59점으로 나타나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의 노인은 다른 라이프스타일 집단보다도 연령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상생활수행능력 각각의 문항을 모두 더한 ADL총합 점수는 5점에서 3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ADL총합은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라이프스타일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적극적인 자기개발형에 속한 노인들의 ADL총합점수는 9.25로 가장 낮아 적극적인 자기개발형의 라이프스타일이 가

장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가장 좋으며, 나머지 5개 집단의 ADL총합은 서로 차이가 없었는데, 그 평균이 14.06점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중간점수인 17.5보다 낮게 나타나 조사대상노인 대부분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5.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경제생활실태 분석

조사대상자 노인의 경제실태는 직업유무, 현재소득, 주거상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와 총체적인 경제만족도 같은 주관적인 요소로 살펴보았다.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현재 직업보유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를 <표 9>에서 살펴보면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적극적인 자기개발형을 제외한 다른 라이프스타일 유형에서는 직업이 없는 비율이 없는 비율에 비해 약 2-3배 가량 높았으나 적극적인 자기개발형 집단에서는 직업소유와 비소유의 비율이 각각 47.6%와 52.4%로 서로 비슷한 것으로

〈표 9〉 직업소유 유무

분류	군 집	1. 적극적 자기개발형 (n=21)	2. 비판적 개인주의형 (n=105)	3.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 (n=27)	4. 전통지향적 현실순응형 (n=97)	5. 보수적 현실불만형 (n=113)	6. 내향적 자아추구형 (n=100)	계 (N=456)
		직업유무	유	10 (47.6)	36 (34.3)	6 (22.2)	14 (14.4)	31 (27.4)
무	11 (52.4)		69 (65.7)	21 (77.8)	83 (85.6)	82 (72.6)	76 (76.0)	342 (73.9)
		$\chi^2 = 16.065^{**}$						

*: P<.05 **: P<.01 ***: P<.001

〈표 10〉 현재소득

(N=463; 단위: 만원)

분류	군 집	1. 적극적 자기개발형 (n=21)	2. 비판적 개인주의형 (n=105)	3.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 (n=27)	4. 전통지향적 현실순응형 (n=97)	5. 보수적 현실불만형 (n=113)	6. 내향적 자아추구형 (n=100)	분산분석 F값
		현재소득	M D A	248.50	210.58	179.58	165.08	
			AB	B	B	A	AB	

*: P<.05 **: P<.01 ***: P<.001

〈표 11〉 주거상황

빈도(%)

분류	군 집	1. 적극적 자기개발형 (n=21)	2. 비판적 개인주의형 (n=102)	3.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 (n=26)	4. 전통지향적 현실순응형 (n=94)	5. 보수적 현실불만형 (n=113)	6. 내향적 자아추구형 (n=100)	계 (N=456)
		주거상황	자가	19 (90.5)	86 (86.9)	24 (96.0)	63 (74.1)	97 (91.5)
타가	2 (9.5)		13 (13.1)	1 (4.0)	22 (25.9)	9 (8.5)	8 (8.2)	55 (12.7)
		$\chi^2 = 18.663^{**}$						

*: P<.05 **: P<.01 ***: P<.001

나타났다. 이것은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적극적인 영향도 있겠고, 적극적 자기개발형이 다른 라이프스타일 집단과 비교했을 때 남자노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노인의 소득에 있어서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10),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과 전통지향적 현실순응형의 라이프스타일에 속한 노인들의 소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소득 수준을 보여주고있

다. 이는 직업유무 및 학력에 대한 해석결과와 같이 이 두 라이프스타일유형에 70세 이상의 연로한 노인들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여자 노인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더 많다는 선행연구결과(박재간, 1996)와 이 두 유형이 내향적 자아추구형과 더불어 여자노인이 많은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을 볼 때 성별 구성이 노인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미쳐 더 낮은 소득수준을 산출했으리라 짐작해볼 수도 있다.

<표 12> 경제생활만족도

군 집		1. 적극적 자기개발형 (n=21)	2. 비판적 개인주의형 (n=105)	3.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 (n=27)	4. 전통지향적 현실순응형 (n=97)	5. 보수적 현실불만형 (n=113)	6. 내향적 자아추구형 (n=100)	분산분석 F값
만족도	M	2.62	2.70	2.59	2.66	2.96	2.85	2.540*
경제생활 만족도	D	AB	AB	B	AB	A	AB	

M : 5점 평점 척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속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D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은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고, 문자의 순서는 점수의 크기순서와 같다.

*: P<.05 **: P<.01 ***: P<.001

<표 11>은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측정되는 변수인 주거상황에 대한 것으로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87.3%의 노인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볼때는 전통지향적 현실순응형 노인들의 주택보유율이 74.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생활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은 낮게, 보수적 현실불만형은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객관적인 소득 수준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 12).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정부 및 사회의 노인복지대책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노인의 삶을 파악함에 있어서, 삶을 통해 형성되어 노인 개개인의 특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노인집단을 유형화하고,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노인의 건강 및 경제생활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설명해 줄 수 없는 생활의 제 측면을 라이프스타일 특성으로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은 적극적 자기개발형, 비판적 개인주의형,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 전통지향적 현실순응형, 보수적 현실불만형, 내향적 자아추구형의 6개 유형으로 나뉘어 졌다.

둘째,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노인의 건강 및 경제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 자기개발형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장 질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 전반에 걸쳐 가장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가장 높은 소득을 보고하고 있으며, 직업이 있는 사람이 많았다. 비판적 개인주의형의 노인들은 건강생활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가장 질병을 많이 앓고 있으며, 스스로도 가장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있어서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지만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유형으로 나타났다.

감각지향적 현실향유형 노인들의 건강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면, 복통 및 두통과 같은 일반적인 면에서 병을 많이 앓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건강은 양호한 편이었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측정해 보았을 때 절대적으로는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편이었으며 전통지향적 현실순응형 다음으로 낮은 현재소득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의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지향적 현실순응형인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경제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면, 직업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현재소득은 가장 낮았다.

보수적 현실불만형의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질병보유정도나 주관적인 인식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좋은 편이었다. 소득 수준과 경

제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내향적 자이추구형의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다른 노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보통이었으며, 여성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매우 다원화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노인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척도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라이프스타일은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로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생활측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개인의 가치와 의견, 행동의 반영물이므로, 개인을 이해하고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는 노인복지에 관심있는 연구자, 정책결정자 그리고 노인자신의 생활양식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실증분석으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라이프스타일 분석은 보편적 가치체계 및 생활방식을 중심으로 한 유형분류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적용영역이 넓다고 할 수 있겠지만, 라이프스타일 구성요소들에 대한 보다 정교화된 이론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가치체계 및 생활방식이 그 사회의 문화적, 시대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정교화되어야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생활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 및 경제생활측면에서만 분석을 시도했지만, 노인생활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포함한 정서적 지원 환경 및 의, 식, 주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실태파악을 위한 문항 선정에 있어서도 노인의 세부적인 생활의 측면을 보다 잘 반영하여 생활실태를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및 사회의 복지정책수립에 이용될 수 있는 정교화된 체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계선자, 강기정, 정미선(1994).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양육비 지출 구조 및 지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생활과학연구지』, 9, 21-44.
- 2) 고승덕, 조숙행(1997).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인 추출. 『한국노년학』, 17(2), 17-36.
- 3) 고영수(1993). 혼자사는 노인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경제, 건강 및 정서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용(1996). 노령인구와 가족구조의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철웅(1998). ADL을 이용한 무료노인요양시설 수용노인의 돌봄요구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박경혜(1997). 고령화사회의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노인의 취업문제를 중심으로-.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박영란(1988). 한국노인의 부양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박재간(1995). 무각출 노령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그 도입방안.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출판.
- 9) 백중남(1996). 농어촌 지역의 노인실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성혜영, 임정빈(1994).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39-251.
- 11) 안영면(1996).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관광객(소비자) 행동특성에 관한 소고-한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 10, 105-136.
- 12) 안홍석(1991). 우리나라 라이프스타일 연구에 대한 분석적 고찰 및 실증연구-한국적 라이프스타일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향의 제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윤종선(1994). 우리나라 노인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가옥(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

- 사회연구원.
- 15) _____, 서미향, 고경환, 박중돈(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6) 이차옥(1983). 우리나라 도시거주 가정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특히 서울시내 거주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장 현 · 이철우(1996). 노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시간적 차원의 연구. 『한국노년학』, 16(2), 137-150.
 - 18) 조형오(1996).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분류 및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 19) 채진미(1997). 50~60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다양성과 의복구매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 『노인정(경로당) 활성화방안』.
 - 20)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 『한국 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 21) 황준호(1990).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조사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Alpert, L. & Gatty R. (1969). Product Positioning by Behavioral Life-Style, *Journal of Marketing*, April, 123-124.
 - 23) Birren, J. E. (1959). *Principles of Research on Aging*.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Individu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3-42.
 - 24) Breen, L. B. (1960). *The Aging Individual*. In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ed. by C. Tibbit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45-162.
 - 25) Chatfield, W. F. (197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32, 593-599.
 - 26) Engel, J. F., Blackwell, R.D. & Miniard, P.W. (1986). *Consumer Behavior*, 5/w. New York: The Dryden Press, p.252.
 - 27) Lazer, W. (1963). *Life Style Concepts and Marketing in Toward Scientific Marketing*, ed. by Stephan A Greyser, Chicago: A.M.A., pp.140-150.
 - 28) _____. (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Styles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38(Jan.), 34.
 - 29) Magilvy, J. K. (1985). Quality of Life Hearing Impaired Older Women, *Nursing Research*, 34(3), 140-144.
 - 30) Mannino, F. (1970). An Ec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Family and Community Rel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9-13.
 - 31) Splett, P. L. (1994). *Federal food assistance programs- a step to Food security for Many*. Nutrition Today, p. 6.
 - 32) Sproles, G. B. (1979). *Fashion-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apolis, Minnesota: Burgess Publishing Co.
 - 33) Wells, W. D. & Tiger, D. J. (1971). Activities, Interests & Opinion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11(August), 27-35.
 - 34) Wells, W. D. (1975). Psychographic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May, 196-209.